

17세기 인테리어 디자이너 타피시에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 타피시에. 이들은 집에서 쓰이는 일체의 장식용 직물, 즉 의자 덮개부터 커튼까지 직물을 이용한 모든 장식을 도맡은 직업인이다. 베르사유 궁을 비롯한 유럽 왕가 고성의 고풍스러운 내부 장식은 타피시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 1 폰텐블로 성 내에 있는 황제의 방. 침대부터 의자까지 브라제 아틀리에에서 나폴레옹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했다.
- 2 브라제 아틀리에에는 다마스, 실크, 브로카텔 등 수공으로 생산된 귀중한 텍스타일을 사용한다. 사진은 루이 15세 시대에 많이 사용하던 실크로 마감한 루이 15세 시대의 의자.



극작가 몰리에르의 비밀

유구한 역사를 지닌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극장, 코메디 프랑세즈는 몰리에르의 집(La Maison de Molière)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몰리에르Molière는 프랑스 국립극장의 두 번째 이름으로 쓰일 만큼 프랑스의 유명 극작가다. 그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비밀이 있는데 바로 몰리에르는 필명이고, 그의 본명은 장 밥티스트 포클랭이라는 것.

포클랭이라는 성은 몰리에르만큼은 아니었지만 17세기 장식미술계와 사교계에서는 제법 유명한 이름이었다. 몰리에르의 아버지 포클랭이 그 명성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3천 개가 넘는 베르사유의 방마다 커튼을 달고, 관리하며 동시에 몇만 개를 헤아리는 의자의 천갈이부터 루이 14세의 침대보와 침대 장식을 매일 새 것으로 갈아 씌우는 일까지 엄청난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의 직업은 바로 타피시에Tapisserie였다. 17세기와 18세기는 타피시에의 전성기였다. 베르사유의 루이 14세 침실은 천장과 바닥을 빼고는 모조리 직물로 덮여있을 정도다. 의자 역시 나무로 된 틀보다 천과 쿠션으로 마감한 부분이 더 많고, 침대는 아예 나무틀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는 가구를 살 때 나무 값보다 직물 값을 더 치던 시대였다. 사시사철 온 궁전의 커튼부터 침대보까지 일체를 바꿔 분위기에 변화를 주고, 한 방에는 한 가지 직물만 써서 통일감을 주는 게 17세기식 인테리어의 기본이었다.

한편 포클랭은 오늘날로 치면 스타급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포클랭은 이런 막강한 지위를 바탕으로 당시 직물과 가구 산업을 좌지우지했다. 이런 아버지 덕분에 몰리에르는 돈 걱정 없이 태평하게 작품을 쓰는 데 몰두할 수 있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레미 브라제

수만 개의 타피시에 아틀리에가 존재하지만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명도 높은 타피시에인 메종 브라제Maison Brazet를 이끌고 있는 레미 브라제Remy Brazet는 격조 높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떠올릴 만큼 정중하며 사교적이다. 레미 브라제 장인로서는 드물게 박물관 전문 큐레이터를 길러내는 전통 있는 학교인 에콜 뒤 루브르 출신이다. 천갈이와 커튼을 만드는 수공예적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미적으로 아름다운 지점을 찾아내야 하는 타피시에라는 직업의 특성 때문에 전문학교가 있다. 그는 타피시에라는 직업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한다.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도, 북을 치는 것도 아니지만 지휘자가 빠진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라고 부를 수 없다. 거기에는 소리의 조화가 없기 때문이다. 타피시에에는 가구 장인이 만든 의자와 직조공의 직물을 가장 아름답게 조합하는 사람이다. 타피시에를 만나기 전 의자는 의자가 아니라 틀에 불과하며, 직물은 단순한 천조각에 불과하다. 의자 틀과 직물은 타



- 3 브라제 아틀리에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마리 앙투아네트 의자는 현재 베르사유 궁에 전시되어 있다. 루이 16세 시대 왕실 장인 조지 자콥의 작품이며 고증을 거쳐 실크에 양각 디자인을 더한 원래의 텍스타일을 그대로 복원했다.
- 4 의자틀에 말총을 넣어 시트와 등받이를 채우는 작업은 의자의 모양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다.
- 5 장식술 하나까지 손바느질로 작업하기 때문에 의자 하나를 천갈이 하는데 대략 2주가 걸린다.
- 6 의자 손잡이는 입체적인 형태가 돋보이도록 패션의 입체 재단처럼 텍스타일을 자르지 않고 드레이핑해 고정한다.
- 7 천갈이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의자는 그 자체로 완결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피시에의 손을 거쳐야 마침내 아기 엉덩이 같은 탱탱하고 아름다운 쿠션을 갖춘 의자가 된다.

브라제 아틀리에의 고적한 시간

파리 16구 가정집 건물의 은밀한 중정 안에 숨어 있는 브라제 아틀리에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누구나 손으로 창조해낸 텍스타일에 넋을 잃는다. 브라제 아틀리에에서는 오직 주문으로만 텍스타일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아티스틱하고 유니크한 직물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레미 브라제에게 조언을 구하는 손님이 베르사유 궁의 책임 큐레이터부터 17세기 의자 컬렉터까지 다양한 이유다. 브라제의 장인들은 등받이가 동그랗고 엉덩이가 닿는 곳이 마름모꼴인 루이 16세의 의자와 넓적하면서도 우아한 제정시대의 소파를 어떻게 원래 그대로 복원해낼 수 있을까? 브라제 아틀리에에 소속된 4명의 타피시เย와 2명의 바느질 전문 장인이 있기에 가능한 일. 그들은 하루에 6mm 정도만 짤 수 있는 귀한 직물을 재단하고 바느질해 의자에 옷을 입힌다. 의자 쿠션에 들어갈 말총을 고르고 쌓으며 천 하나하나를 손으로 바느질해 의자 하나를 완성하는 데 평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구석구석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의자에 가장 완벽한 치장을 입혀주는 시간이다. 이 때 공방 안은 조용히 작업에 몰두하는 인내의 공기가 고적하게 머문다.

현시대에 손으로 짠 5cm 두께의 벨벳 직물을 의자나 커튼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다. “만져보세요. 손으로 짠 이 직물의 두께와 아름다움을 보세요.” 레미 브라제는 하나의 직물을 선보이며 말한다. 수를 놓은 듯하지만 실제로는 직물을 짤 때 무늬를 넣는 브로카텔 기법(양각 디자인)으로 만든 직물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단 1명의 장인만이 만들 수 있는 귀한 작품이다. 커튼이나 쿠션 같은 직물을 이용한 집 안 장식품도 만드는데, 특히 커튼은 브라제 아틀리에의 자랑거리. 직물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드레이핑을 살릴 수 있는 수십 가지 공예법을 보유하고 있다. 브라제 아틀리에에서 커튼은 완성되기까지 빠르면 2주, 늦어지면 몇 달이 걸리기도 하는 대작업이다. 그렇기에 직물과 의자 틀, 타피시에의 손과 눈이 만나 완성되는 극상의 아름다움에는 가격이 없다. 그게 바로 타피시에라는 17세기 작업이 오늘날까지도 건재한 이유다. maisonbrazet.com

이지은
미술사학자, 장식미술 감정사이자 작가로, 파리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파리 1대학에서 박물관학 석사, 파리 4대학에서 미술사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저서로는 <부르주아의 유풀한 사생활>, <유럽 장인들의 아틀리에>, <액자, 사물들의 미술사> 등이 있다.

